

도서관탐방

충성스러운 헌병의 지식(文) 연마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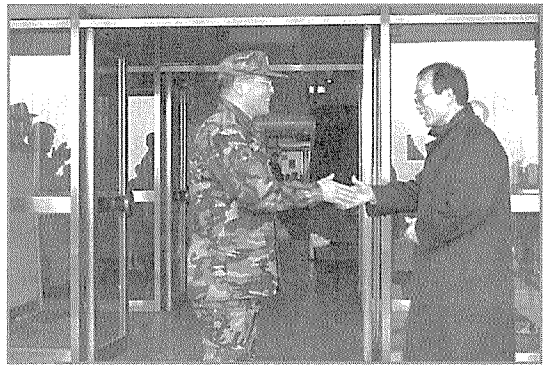
수방사헌병단도서관 '충헌 서원'

최근 몇 년간 '병영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확실히 관련 법령 개정(도서관및서진흥법 제37조의2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병영도서관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있는 듯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관심을 놓아서는 안되는 분야일 것이다.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수방사헌병단도서관으로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31번째 결실이 맺어진 곳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탐방은 도서관 '개관식' 탐방이다. 군의 특성상 아무래도 병영도서관 방문이 생각만큼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번 호에서는 개관식 탐방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도서관 이름은 '충헌(忠憲) 서원'. 군 부대와 경찰, 교도소에 도서관을 만들고 교양·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민단체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진중도서관 건립 국민운동이 31번째로 문을 연 도서관이다.

2월 3일(목) 마련된 개관 행사에는 김성재 운동본부 상임대표(전 문화관광부 장관), 민승현 본부장, 오상열 운영위원, 교보문고 권경현 사장, 부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도서기증서 전달〉

이날 행사는 주요 인사가 참여한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권경현 교보문고 사장이 헌병단 단장에게 도서기증서를 전달하였으며, 김성재 대표의 기념사, 권경현 사장의 축사, 헌병단 단장의 답사에 이어 통합막사 1층에 마련된 도서관 입구에서 진행된 헌판식과 도서관 현황보고 순서로 이어졌다.

'충성스러운 헌병의 지식(文) 연마 도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도서관 '충헌(忠憲) 서원'은 13평 면적에 3,674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추후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영도



〈테이프 커팅식〉

* '병영도서관'이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는 2003년 5월 29일 공포된 '도서관및서진흥법'의 제2조(정의) 9항으로 병영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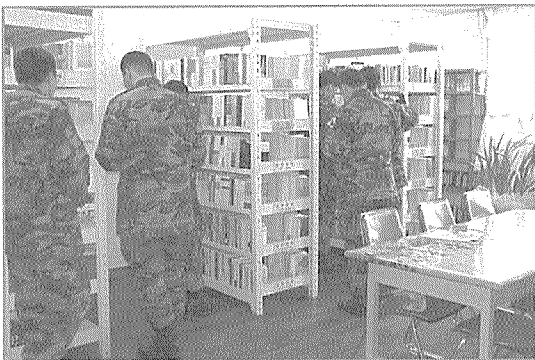


〈도서관 현황보고〉

서관 시설 기준(면적 20평, 장서 6천권)에 맞게 확장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병단은 장병의 독서활동 증진 등 정보화시대의 지식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병영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가운데, 작년 12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병영도서관 독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최 (사)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 · 진중도서관건립국민운동, 후원 국방부 · 문화관광부 · 한국도서관협회, 협찬 교보문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1월 12일 헌병단 대 병영도서관 개관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 후 약 2주간에 걸쳐 도서관 벽면 도색, 바닥장식, 조명기구 · 커튼설치 등 도서관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기존도서 2,200여권을 장르별로 세트화하여 검문소, 영창 등에 분배하였다. 그



〈도서관 서가를 둘러보는 장병들. 만화책에서부터 수필, 소설, 인문·사회 전문 도서, 비디오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도서관에 대한 병사들의 호기심 가득한 발길이 계속되었다〉

후 기증도서 서고를 정리하고 DB구축 및 검색 기능이 가능한 전산화 작업까지 마쳤다.

‘충헌 서원’ 운영 관계자는 도서관 개관 후 중점 역점 사항으로 ▲ 지속적인 신간도서 대여 ▲ 자유시간을 활용한 병영 내 독서 동아리 활동 “봄” 조성 ▲ 기증도서 목록 전산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도서관리를 꾀았으며 책을 통해 군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책 읽는 병사, 학습하는 군대” 만들기 문화가 확산 · 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운영계획〉

- 이용대상 : 헌병단 전 장병
- 이용시간

구분	평일 (1회)	토요일 (2회)	휴일 (3회)
시간	18:00-20:00	14:00-16:00 18:00-20:00	09:00-12:00 14:00-16:00 18:00-20:00

- * 토요일 18:00-20:00, 일요일 09:00-12:00/18:00-20:00
에 분부 중대 도서대기병 운영
- 대출 : 개인별 1주일간 2권 이하

확실히 병영도서관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전문 사서 인력 부재, 신간공급의 지연, 지휘관 개인적 스타일에 좌우, 사회적 무관심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

하지만 1960~1970년대 위문편지와 함께 치약 등 생필품을 위문품으로 보내던 당시와 오늘의 군 환경은 분명 다르다. 그리고 장병들은 언젠가는 사회로 되돌아가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을 위해, 궁극적으로 국가와 인류를 위해 기여할 사람들이다. 군대를 문화의 사각지대가 아닌 꽤 갈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병영도서관 운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 [글 · 사진 : 도서관문화 편집팀]